3. 등장인물 :

최우수(18세)

평범한 고등학생 우수는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무기력한 나날을 보낸다. 성격은 점점 까칠해지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대학은커녕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싶다. 현우를 마지막으로 상담했던 오선생을 만나고, 현우가 읽었던 소설을 읽게 되면서 현우에 대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차츰 알게 된다. 그 와중에 인근에서 일어난 고급빌라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의심 받게 되고, 사고가 이어지지만, 이를 계기로 슬픔과 절망을 추스르고, 다시 시작하자 다짐한다.

공현우(18세)

우수의 친구다. 다정하고 친절한 성격의 현우는 한 사건 현장에서 범행도구를 든 채 발견되고, 강력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 받던 도중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조사를 담당한 박형사를 비롯해 누구에게도 사건에 대해선 함구해 사망 후 관련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는다.

김형준(18세)

우수와 현우의 친구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기보다 스토커 느낌이 좀 더 강하다. 귀찮아하는데도 돕겠다고 쫓아다니는 오지랖이다. 가끔씩 모자라 보이게 욱하고, 자주 삐치지만, 머리가 좋고, 현우와 우수에 비해 여러 면에서 어른스럽다. 살뜰히 챙길 땐 의지하고픈 형 같은 친구다.

<오디션 파트>

67. 병원 진료실 (낮, 3차 상담)

오선생과 우수가 마주 앉아있다.

우수　보고 싶어요. (감정이 격해진)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선생님을 원망 했었지만, 제 잘못이 더 커요. 제가 도왔어야 했어요. (눈물을 쏟는) ...

오선생 (손수건 건네주는) 우수 학생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우수　(손수건 받고, 오선생 보는) ...(손수건에 하·이·드 적혀있고...)

오선생 (결심하고) 잠시 만요.

오선생이 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오선생 뒤로 현우가 따라 들어온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우수, 눈물이 주룩 나고.

어두운 표정의 현우, 천천히 다가가 울고 있는 우수를 끌어안고.

우수, 그대로 굳어버린다.

우수　(안긴 채) ... 어떻게 이런 일이...
현우　(안은 채) 나 왔어. 오랜만이다.
우수　(눈물을 달고, 현우 보는) ... 뭐야... 진짜 믿기질 않네. (밀치는)
현우　(밀리고) ...
우수　우와- 우와-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을 비트는) 으...
현우　(걱정스러운) 너 괜찮아?
우수　지금 내가... 널 한 대 세게 쳐야 하거든. (주먹을 쥐어보는데...) 당해보니까 힘이 빠져서 칠 수가 없다. (툭 떨어지는 주먹)
현우　(미안하고... 좋고...) ... 잘 됐네...

(시간경과)

현우와 우수가 마주 앉아있다.

우수　(믿기지 않는) 그럼... 그동안 의심 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현우　나도 몰라, 그들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는... 난 내 일만 하면 되니까.
우수　... 그게 어떻게 가능해?
현우　...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불법한 고리는 끊기 어렵고, 합법으로 위장한 사각지대는 견고하고, 세상의 정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우수　...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현우　죽는 것 보단 나으니까...
우수　(먹먹해지고, 보는) ...이젠 괜찮아?
현우　아직... 앞으로도 자신 없고... (미소 짓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니까.
우수　나 좀 무서워지려고 그래.
현우　당연히 무서워야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데.
우수　야!
현우　천천히... 생각 많이 하고 결정한 거야. 쉽게 결정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수　... 어떻게 살지 벌써 결정했네? 취직도 하고... 부러운데?
현우　(부러워할 일은 아냐... 보는) ...